

金鰲新話의 意味構造와 作家意識

안 창 수

〈目 次〉

- | | |
|---------------|----------------|
| 1. 머리말 | 3. 탈출의지와 삶의 이치 |
| 2. 만남의 양상과 의미 | 4. 맺 음 말 |

1. 머리말

<금오신화>는 모두 다섯 편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금오신화>는 개별적인 작품으로 뿔뿔이 나뉘어져 읽혀지기도 했고¹⁾, 작품론에서도 다섯 편의 작품 가운데 몇 작품을 떼어내어 다루기도 했다. 그렇다면 <금오신화>는 단순히 김시습이 금오시기에 썼던 다수의 소설들을 대변하는 명칭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한 편의 완결되어진 작품에 대한 명칭일까? 전자에 불과하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후자라면 몇 작품만을 떼어서 읽거나 다루는 것으로는 <금오신화>의 일면적 혹은 부분적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자명한 사실이지만 <금오신화>를 한 편의 작품으로 다루어야 작품의 전체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오고,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생각도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다.

1) 정병욱, 최문헌전에 대하여(한국고전의 재인식, 흥성사, 1979, 269~271쪽)에 의하면 신독재 김집(1574~1665)이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 두 편을 필사해서 읽었던 자료가 전해 온다.

2. 만남의 양상과 의미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은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의 순서로 실려져 있다. 이 가운데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은 산 남자와 죽은 여자 사이의 애정 문제를 다루고 있고, ‘남염부주지’와 ‘용궁부연록’은 꿈을 매개로 한 異界探索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취유부벽정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함께 나타난다.²⁾ ‘취유부벽정기’를 축으로 해서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이 두 유형으로 갈라지며 일정한 변모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에서 죽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세계와 화합하려는 자아의 의지가 그만큼 처절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자아는 세계와 맞서고 세계는 이런 자아의 행위를 용납 않으려는 역설적 의미를 보여준다고 해석되어 <금오신화>가 소설의 갈래 특성을 본격적으로 실현시킨 작품임이 논증되기도 했고,³⁾ 인간성을 긍정하는 현실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주인공들이 자신들의 사랑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세상이나 운명과 맞서다가 부쉬져버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 사랑의 고귀함을 알려준 비극적 작품으로 해석되기도 했고,⁴⁾ 주리론적 윤리관과 주기론적 존재론을 결합시키려는 시도와 고민을 드러내거나 불교의 힘을 빌어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으나 결국 더욱 심한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된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해석되기도 했다.⁵⁾

그러나 어떻게 해석되든 위의 두 작품에는 남녀 사이의 애정문제가 바탕이 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작품에 접근하는 중요한 접근 통로가 될 수 있다. 남녀의 애정관계는 흔히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내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만복사저포기’에는 한 번의 만남과 헤어짐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늦도록 장가를 들지 못해 애대우

2) 산 남자가 죽은 여자와 정을 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를 冥婚小說로, 꿈 속에서의 일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남염부주지’와 ‘용궁부연록’을 夢遊小說로 부르기도 하는데(趙東一, 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產業社, 224~238쪽, 1977), 여기에서도 ‘취유부벽정기’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는 중간적 작품으로 분석되고 있다.

3) 趙東一, 小說의 成立과 初期小說의 類型的 特徵(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產業社, 1977)

4) 林榮澤, 現實主義의 世界觀과 金鰲新話, 서울대 碩士論文, 1971.

5) 金一烈, 金鰲新話考察(한국어문학회 편, 조선전기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76)

고 있던 양생과 처녀의 몸으로 죽어 이성을 그리워 하고 있던 여인은 저녁 불공이 끝나 어두워진 만복사의 법당에서 만나 곧 서로에게 이끌려 정을 통하게 되고 여인의 무덤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사랑의 밀도를 높여가다가 보련사에서 있는 여인의 대상날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비해 '이생규장전'에는 세 번에 걸친 만남과 헤어짐이 거듭해서 나타난다. 송도의 낙타교 옆에 사는 이생과 선죽리에 사는 최소저는 꽃피는 봄날 최소저의 별당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생의 부친이 들을 깨어 놓는다. 최소저의 부모가 주선해서 들은 다시 만나 결혼하게 되지만 흥건적의 난이 일어나 최소저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다시 헤어지게 된다. 그러나 최소저가 혼백의 몸으로 나타나 들은 3년 동안 부부의 관계를 지속하게 되지만 세상에서의 인연이 끝나면서 헤어지게 된다.

'만복사저포기'에서 양생은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랑을 이루고, 헤어지자 세상을 등지고 지리산에서 생을 마쳤다. 그 한 번의 만남이 존재의 의미를 바꾸어 놓을 만큼 격렬하고 심각한 것이었음을 드러낸다. 이 때문에 작품은 만남 자체가 얼마나 가치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별 또한 얼마나 애달픈 것인가를 드러내는 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이들의 사랑은 들만의 내밀한 공간 속에서 이루어 진다. 양생이 여인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의 눈에는 여인이 보이지 않고 양생도 그들에게 구태여 여인의 존재를 알리려 하지 않는다. 여인의 존재는 친척이나 부모들의 눈에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들 사이에 외부인이 개입된 것은 양생이 여인의 집(무덤)에서 떠나는 날 벌인 잔치에 이웃에 사는 4명의 여인들을 초청했을 때뿐인데 이 여인들도 살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양생과 여인의 사랑이 사회적 공간과 철저하게 격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들만의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사랑 이것은 참으로 비밀스러운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 수 있고 때문지 않은 순수함을 간직할 수 있다. 작품에는 사랑을 이루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대립구도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중심의 사전전개보다 들만의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애절한 사랑의 서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이생규장전'에는 만남과 헤어짐의 양상이 전후 세 차례에 걸쳐 나타나고 있었

다. 이들이 처음 헤어지게 된 것은 이생의 부친이 둘 사이를 강제로 떼어 놓으려 했기 때문이다. 남녀의 결합은 부모의 허락 하에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부친의 입장이었는데 이것은 사회의 통념이기도 했다. 구성원 개개인을 구속하여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금기체계가 이생과 최소저의 자유분방한 결합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그러나 최소저가 목숨을 걸고 금기체계에 맞서 사랑을 지키려 했던 데 힘입어 이들은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이생과 최소저가 다시 헤어지게 된 것은 흥건적의 난이 일어나 최소저가 정절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다 적도들에게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 또한 사회의 중요한 금기체계의 하나이다. 사회의 금기체계와 맞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했던 최소저가 거꾸로 금기체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은 행위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흥건적의 난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 자체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대규모의 파괴가 자행되어진 사건이었다. 이같은 전란에서 개인의 삶은 사회 전체의 안녕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해 지는 것이다. 최소저가 적도들에게 사회의 금기체계인 정절의 수호를 내세워 죽음으로써 저항했던 것은 개인의 삶이나 행복을 지키는 것과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⁶⁾

자신의 잘못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기에 최소저의 죽음과 그로 인한 이별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최소저는 幻身으로 나타나 이생과 결합함으로써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맺는다. 납득할 수 없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고자 했던 처절한 염원의 결과였다. 그러나 저승길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죽은 사람이 오랫동안 이승에 머물며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는 일 이므로⁷⁾, 최소저는 삼년 뒤 이승을 떠나고 만다.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은 모두 죽어서도 만나야 했던 사람들 사이의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금오신화>는 창작 당시부터 작가의 寓意가 담겨진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⁸⁾ 따라서 작품의 보다 내밀한 의미는

6) 도적들에게 죽임을 당한 뒤 환신으로 되돌아 온 최소저는 이생에게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워 다행히 연약한 몸이 욕을 입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義重命輕 幸殘軀之免辱)”라고 하여 금기체계를 어기고 얻을 수 있는 삶이 자신에게 무의미한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7) 冥數不可駭也……假以幻體 與生暫割愁腸 非久留人生 以惑陽人(李生窺牆傳).

남녀 사이의 애정이라는 일차적인 의미의 망을 넘어서는 데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

김시습이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죽어서도 다시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세종임금이다. 김시습은 한미한 무반 출신이었다. 조선은 건국 이후 점차 중세적 질서를 강화시켜 가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도 신분을 중시하였다. 김시습이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관계에 진출하지 못하고 세조의 왕위찬탈을 계기로 세상을 등지게 되었던 것도 한미한 무반 출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회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기도 하다.⁹⁾ 그러나 세종은 일찌기 김시습의 천재성을 인정하고 장래를 책임지려 했었다.¹⁰⁾ 신분보다는 능력을 높이 사는 세종의 인재등용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절대 군주인 임금으로부터 장래를 약속받는다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다. 더구나 신분의 벽이 강화되어 가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장래에 대한 세종임금의 약속은 당사자에게 상당한 분발심과 임금에 대한 절대적 존경과 신뢰를 불러 일으켰을 수 있다. 사실 김시습은 매양 술을 마시며 “우리 영묘(英廟 - 세종)를 뵈지 못한다.”고 하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고 하는데,¹¹⁾ 그의 문집에는 세종에 대한 추억과 존경을 솔직한 글이 도처에 널려 있어 세종에 대한 김시습의 그리움이 어느 정도였던가를 잘 보여준다.

‘만복사저포기’에서 양생과 여인의 사랑은 사회적 공간과 철저히 격리되어 둘만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만의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던 내밀한 감정을 표출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만복사저포기’는 김시습과 세종임금 사이에 흐르는 서로 아끼고 존경하는 둘만의 내밀한 감정을 표현하려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을 쓸 당시에 세종은 이미 돌아가시고 없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작품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애정을 다루고 있는 것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다. 양생은 여인과 한 차례의 만남으로 사랑을 이루고 헤어지자 세상을 등지고 떠났다. 그 한 번의 만남이 삶을 온통 바꾸어 놓을 만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시습도 세종임금과 단 한 차례의 만남을 가

8) 入金鰲山 著書藏石室曰 後世必有知岑者 其書大抵述異寓意(金安老, 龍泉談寂記).

9) 정병욱, 김시습연구(한국고전의 재인식, 홍성사, 1979, 39~40쪽)

10) 傳旨曰……宜還家 諭誨教養至勤 待年長 學業成就將大用(金時習, 上柳襄陽陳情書).

11) 性嗜酒飲醉則曰 不見我英廟 流涕甚悲(金安老, 龍泉談寂記).

진다. 세종이 김시습의 천재를 시험해 보기 위해 궁중으로 불러들인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만남 또한 김시습에게 있어서 삶의 전 생애를 바꾸어 놓을 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양생이 세상을 등진 것은 여인이 없는 세상에서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김시습이 세상을 등졌던 것도 세종이 돌아가신 후의 세상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애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생규장전’의 창작동기도 기본적으로 ‘만복사저포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생규장전’에서 이생과 최소저의 사랑은 둘만의 내밀한 공간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간에서 이루어 진다. ‘만복사저포기’에서 양생과 여인이 만났던 때가 밤중이었던 데 비해 ‘이생규장전’에서 이생과 최소저의 만남은 화창한 봄 환한 대낮에 이루어진다.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개인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밤이 아니라 대낮이었다는 데에서도 이생과 최소저의 사랑이 열려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암시된다. 이생과 최소저는 세 번에 걸친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을 되풀이 한다. 만남 그 자체의 내밀한 의미보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강조되며 온전한 만남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사회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김시습과 세종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의 과정이 표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생과 최소저는 모두 개성에서 소문난 재자가인이었다. 화창한 봄 어느날 최소저는 이생의 준수한 모습을 보고 시를 지어 유혹했고, 이생도 이에 화답하면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 서로의 인간적 가치에 이끌리게 된 것이 만나게 된 동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시습이 세종을 만나게 된 동기도 이와 같다. 세종이 한미한 무반출신에 불과한 김시습을 궁궐로 불러 들인 것은 그의 천재성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다. 세종은 김시습의 인간적 가치에 이끌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생과 최소저의 만남이 둘의 야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의 금기체계를 넘어서는 데에서 이루어져야 했듯이 김시습과 세종의 만남도 점차 신분의 벽을 높혀 가고 있던 당시의 금기체계를 넘어서야 했다. 김시습을 궁궐로 불러들였음에도 친히 만나서 그 천재성을 시험해 보지 못하고 知申事 朴以昌을 대리로 시켜야 했다. “김시습을 친히 보고 싶지만 사람들이 듣고 놀랄까 두렵다(欲親見 恐駭人聽)”¹²⁾고 한 세종의 말을 통해서도 두 사람을 가로 막고 있던 금기체

12) 金時習, 上柳襄陽陣情書.

제의 벽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금기체계의 벽을 넘어설 수 있었기에 김시습은 세종으로부터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었고 돌아와 장차 임금이 부를 때를 기다리며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15세까지의 시기는 금기체계를 넘어서 결혼한 후 이생과 최소저가 행복한 나날을 보냈던 것처럼 김시습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행복한 시기였다.

유년기의 행복은 김시습이 15세 되던 때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숙모에 의지하였으나 삼년상을 마치기도 전에 외숙모마저 돌아가시고 부친은 병으로 집안 일을 돌볼 수 없는 형편이었다. 가정적인 불행이 겹쳐졌을 때 설상가상으로 세종이 돌아가시고 뒤를 이은 문종마저 돌아가시고 세조의 왕위찬탈이란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만다. 세조의 왕위찬탈은 기존의 질서를 송두리째 엮어버리는 사건이었다. 김시습이 볼 때 세종과 같은 군주에 의해 주도되던 기존의 질서는 중국 삼황오제의 덕치와 유교적 이상정치가 존송되고 실현되어 가던 질서였다.¹³⁾ 세조의 왕위찬탈은 이런 기존의 질서를 힘에 의해 뒤엎어 버리는 패도의 실현이었다. 힘써 학문을 하는 목적이 세종과 같은 임금을 도와 유교적 이상정치를 실현하는데 있었던 김시습에게 있어서 세조의 정변은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무너뜨리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김시습이 “부자 사이에는 친함이 있고, 군신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在父子則有親 在君臣則有義)”¹⁴⁾라는 기존질서의 금기체계를 내세워 세상을 등졌던 것은 기존의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김시습의 개인적인 삶 또한 의미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최소저가 기존의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홍건적의 난에 맞서 기존질서의 금기체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김시습 역시 기존의 질서를 뒤엎어 버리는 세조의 정변에 맞서 금기체계를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삶을 포기했던 것이다. 최소저와 김시습의 경우 개인적인 삶의 행복을 지키는 것과 기존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에 근거한 죽음이 아니었기에 최소저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세조의 정변과 이로 인한 방랑생활은 김시습에게 납득할

13) 김시습은 세종을 三皇五帝에 비견되는 임금으로 평가하고 있어(梅月堂集 卷十二, 病臥彌旬至秋深乃起感今思古作感興詩 참조), 세종의 치세에 대한 김시습의 생각을 알 수 있다.

14) 金時習, 不義富貴如浮雲辨.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때문에 김시습은 언제나 세종에 의해 주도되었던 기존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염원을 지니고 있었다. 최소저가 환신으로 이생과 다시 만났던 것은 기존질서의 회복을 염원하는 김시습의 꿈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은 사람으로 산 사람을 유혹한다는 것이 명부(冥府)의 법에 맞지 않는 것처럼 세조의 정변 이후의 세상은 그나름의 새로운 질서를 확고하게 구축해 가고 있었으므로 정변 이전의 세상을 회복한다는 염원도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꿈이었다. 이런 점에서 최소저와 이생의 이별이 결국 피치 못할 일이었던 것같이 김시습도 실현 불가능한 꿈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러나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죽음이었다고 그로 인한 이별이 최소저와 이생에게 너무도 가슴 저미는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정변 이전의 기존질서를 회복한다는 염원을 포기하는 것은 김시습에게 있어서 삶의 전 의미를 포기하는 일이었다. 이별에 즈음하여 최소저와 이생은 노래를 한 가락씩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막혀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고, 이생 또한 슬픔을 견잡지 못해 최소저와 함께 죽고자 했다.¹⁵⁾ 이 대목의 애절한 탄식과 절망은 자신의 염원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순간 김시습이 느꼈던 엄청난 절망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소저를 장사지낸 뒤 이생은 최소저를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세상을 마치게 된다. 납득할 수 없는 이별을 강요했던 세상과 운명에 대한 반항이라고 할 수 있다. 김시습이 마침내 세상을 등지고 떠났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이생규장전>은 김시습과 세종 사이에 있었던 만남의 사회적 관계를 표출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김시습과 세종의 만남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것은 세조의 정변이었다. 세조의 정변은 힘에 의해 기존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유교적 이상정치의 실현을 신봉하는 김시습의 철학과 신념을 근거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기도 했다. 이것은 엄청난 절망과 좌절이었고 당황스런 결과였으며 세상에 대해 견잡을 수 없는 반감을 품게 하는 것이었다.

15) 每歌一聲 飲泣數下 殆不成腔 生亦悽惋不巳口 寧與娘子 同人九泉 豈可無聊獨保殘生
(李生窺牆傳).

3. 탈출의지와 삶의 이치

‘취유부벽정기’는 참을 수 없는 절망과 세상에 대한 반감으로 방황하던 김시습이 도달했던 사고의 다음 기착지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취유부벽정기’에도 남녀 사이의 애정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다. 개성상인 홍생이 달 밝은 어느 날 밤 부벽루에서 선녀를 만나 시를 화창하고 돌아와서는 그녀를 잊지 못해 병들어 죽었다는 것이 작품의 내용이다. 그러나 앞의 두 작품에서 작중인물들은 이성 사이에서 느끼게 되는 관심과 연모의 감정으로 인해 만나게 되고 관계가 진전되지만 ‘취유부벽정기’에서 홍생과 선녀가 만나게 된 것은 역사와 사회에 대한 관심이 서로 같았기 때문이다.

홍생은 개성의 상인으로 평양에 장사하러 왔다가 부벽루에 올라 고구려의 옛 도읍지를 바라보고 깊은 감회에 젖어 여섯 수의 시를 지어 읊조리며 느껴워 했다. 이 때 홀연히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자기를 은(殷)왕실의 후손인 기씨(箕氏)의 딸이라고 한 다음 위만에 의해 나라가 망한 후 시조이신 단군의 인도로 지금은 옥황상제의 향안을 받드는 선녀가 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문득 고국이 그리워져 옛 도읍지에 내려왔다가 홍생의 시를 듣고 느끼는 점이 있었다고 하며 홍생과 더불어 옛 역사를 회고하고 이제를 돌아보며 감회에 젖는 시를 지어 화답하고는 다시 홀연히 공중으로 사라진다.

이 작품에서 역사와 사회에 대한 작가의 관심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홍생에 의해 고구려의 영광이 반추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씨녀에 의해 기자조선의 역사가 술화되는 것이다. 홍생이 부벽루에서 고구려의 화려했던 영광이 사라지고 난 뒤의 적막함을 읊었다는 것은 멸망한 구왕조에 대한 회고를 통해 고려가 멸망한 후 신정권으로부터 소외당한 개성인들의 반항의식을 표출한 것이라고 해석되기도¹⁶⁾ 한다. 그리고 선녀가 된 箕氏의 딸을 등장시켜 위만을 적대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道仙의 문화의식을 통해 동이문화권(東夷文化圈)과 중화문화권(中華文化圈)을 대립시켜 반존화적(反尊華的) 민족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¹⁷⁾ 이들은 모두 나름대로 타당한 해석들이다. 그러나 작품에 나타난 어느 한 면만을 들어 작품 전체의 의미를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

16) 林榮澤, 現實主義의 世界觀과 金鰲新話, 서울대 碩士論文, 1971.

17) 李相澤, 취유부벽정기의 도가적 문화의식(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사, 1981).

닌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구려와 기자조선의 영광과 역사가 작품에서 함께 회고되고 슬회되는 까닭을 찾아 보아야 한다. 작품은 “평양이 고조선의 도읍지였다(平壤古朝鮮國也)”라는 말로 시작되어 기자가 조선의 왕위에 오르게 된 내력이 서술되고 이어서 평양에 있는 고구려의 고적지가 두루 나열된다. 도읍을 함께 했던 것을 내세워 고구려가 고조선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라는 것을 암시하려는 것이다. 이같은 생각은 작품의 도처에서 발견된다.

仲秋月色正嬋娟	한가위라 달빛은 곱기도 하건만
一望孤城一愴然	외로운 성터는 볼수록 슬프구나
箕子廟庭喬木老	기자묘 뜰에는 큰 나무 해묵었고
檀君祠壁女蘿緣	단군 모신 사당 벽엔 담쟁이 얽혀 있네
英雄寂寞今何在	적막하여라 (고구려의)영웅들은 지금 어느 곳에 있는고 ¹⁸⁾

홍생이 부벽루에서 읊은 회고시의 한 대목이다. 단군과 기자를 모신 사당이 퇴락해 있는 옛 성을 바라보며 이곳을 지키고 있었던 고구려의 영웅들은 지금 어디에 있기에 단군과 기자의 옛 터를 이토록 적막하게 만들었는가 라고 묻고 있다. 고구려의 영웅들에 의해 단군과 기자의 사당이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에 의해서 고구려가 고조선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였다는 생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에는 단군왕검이 세운 고조선의 정통성이 기자에 의해 계승되었다는 생각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자는 중국의 무왕에 의해 조선의 왕에 봉해졌지만 무왕이 기자를 신하로 삼지 않았다(周武王克商 訪箕子……武王封于此地 而不臣也)고 한다.¹⁹⁾ 기자는 조선의 왕이 된 후 중국과는 별개의 독립된 국가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군에 의해 세워진 고조선의 왕통을 계승하는 일이었다는 말이다. 기씨너는 홍생에게 자신의 내력을 말하며 선조이신 기자가 나라를 다스린 후 문물이 천여년이나 빛날 수 있었는데 국운이 비색해져 위만이 왕위를 도적질함으로써 조선의 왕업이 끊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²⁰⁾ 위만에 의해 기자조선

18) 醉遊浮碧亭記.

19) 醉遊浮碧亭記.

이 멸망됨으로써 조선의 왕업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말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자가 단군에 의해 세워진 고조선의 정통성을 물려받았다는 생각은 홍생이 부벽루에서 읊은 앞의 회고시에서 기자와 단군이 조선의 왕으로 함께 거론되고 있고, 워만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는 와중에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던 자신을 단군이 나타나 구해주고 선계로 인도해 주었다는 기씨녀의 진술에서도 거듭 나타나고 있다.

단군에 의해 세워진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성이 기자조선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다시 고구려로 이어져왔다는 생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홍생이 부벽루에서 읊은 회고시는 황량한 옛 도읍지를 바라보며 느끼게 되는 단순한 허무나 무상감의 소산이 아니다. 홍생은 회고시를 읊은 다음 춤을 추고 흐느껴 울어가며 느껴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도 애절해서 깊은 구렁에 잠겨 있는 용을 깨울 만 했다고 되어 있다.²¹⁾ 그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춤을 추고 흐느껴 울어가면서까지 느껴워했다는 것은 단순한 허무나 무상감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슴에 보다 깊숙한 감회를 간직한 자에게서나 볼 수 있는 행위이다.

‘취유부벽정기’는 고구려가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역사의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데 고구려는 신라에 멸망됨으로써 역사의 정통성을 단절시키게 된다.²²⁾ 역사의 정통성이 단절되는 것은 이후의 역사를 엄청나게 왜곡시키게 되므로 참으로 통탄할 만한 사건이 된다. 그렇다면 홍생이 부벽루에서 고구려에 대한 회고에 잠겨 흐느꼈던 것은 고구려가 역사의 정통성을 물려받았음에도 이것이 단절된 데에 대한 통탄이 가슴을 적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부벽루시에서 홍생은 고조선의 역사를 고구려가 지키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고구려의 유적을 보며 느꼈던 홍생의 감회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었던가를 확인해 주는 대목이다.

역사의 정통성을 물려받았음에도 이것을 지키지 못한 역사는 기자조선에서도

20) 我先祖 實封于此 禮樂典刑 悉遵湯訓 以八條教民 文物鮮華 千有餘年……先考敗績 匹夫之手 遂失宗祀 衛滿乘時 竊其寶位 而朝鮮之業 隳矣(醉遊浮碧亭記).

21) 生吟罷 撫掌起舞踟躕 每吟一句 歎歎數聲……足以舞幽壑之潛龍(醉遊浮碧亭記).

22) 물론 이와 같은 역사의식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역사의식은 단군에 의해 세워진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성이 기자조선과 고구려로 이어졌다는 관점에 서있을 때에 한해서 의미를 갖는다.

나타난다. 위만에게 왕위를 도적질 맞음으로써 조선의 왕업이 끊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홍생의 부벽루시에 화답하며 기씨녀도 “이곳은 옛 날 문물의 중심지인데 거친 성 듬성한 나무 남의 간장 다 녹이네(此是昔年文物地 荒城疎樹惱人腸)”²³⁾라고 하여 역사의 정통성이 단절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처럼 홍생과 기씨녀를 부벽루에서 만나게 한 다음 고구려와 기자조선의 영광과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성이 기자조선과 고구려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정통성이 계승되지 못하고 단절된 것을 통탄하는 공동의 역사의식이 매개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세조에 의한 왕위찬탈의 사건은 김시습의 철학과 신념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존재의 의미조차 무너뜨리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충격이 더욱 컸던 것은 세종임금이 삼황오제의 자취를 따라 大道를 회복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종의 치세가 유교적 이상정치 실현을 꿈꾸며 정치의 정통성을 회복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힘을 앞세운 패역에 의해 단절되고 말았다.

세조의 정변 이후 김시습은 견잡을 수 없는 흥분상태에 빠져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훌쩍 세상을 등지고 관서지방으로 여행을 떠난다. 각 지역의 풍물과 경치 그리고 고적지를 찾아보며 김시습은 개인의 울타리를 벗어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삶의 실상을 바로 인식하게 되고 빼어난 풍광에 넋을 잃기도 한다. 그러나 개성에서 평양을 지나 관서지역을 두루 편력하면서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고적지를 답사하며 깊은 감회에 잠기고 있다. 참을 수 없는 절망과 세상에 대한 분노로 방황하던 김시습이 역사의 지평으로 눈을 돌려 삶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⁴⁾

‘취유부벽정기’는 시대의 패역상을 보며 절망하고 분노했던 김시습이 역사로 눈을 돌려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로 눈을 돌려보니 역사의 정당한 흐름이 단절되었던 일이 비단 김시습 당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부벽루에서 홍생과 기씨녀가 만나 고구려와 기

23) 醉遊浮碧亭記.

24) 김시습에게 나타났던 이같은 심경의 변모는 그가 세조의 정변 이후 훌쩍 세상을 등지고 떠나 관서지방을 여행하고 난 뒤 정리했던 <右遊關西錄>에 잘 나타나 있다.

자조선의 영광을 회고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정당한 흐름이 단절되었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고, 홍생과 기씨녀의 비통한 심정은 바로 역사를 쳐다보며 더욱 절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김시습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작품에서 홍생은 기씨녀를 만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서로 다른 인물로 변모한다. 애초에 홍생은 충만한 역사의식으로 가득찬 인물이었다. 평양의 이름있는 기생들이 모두 나와 그에게 추파를 던졌지만 그는 울연히 홀로 부벽루에 올라 고구려에 대한 회고에 잠겨 눈물 흘렸던 것이다. 그러나 기씨녀를 만난 뒤 홍생은 그녀가 돌아갈까 염려되어 이야기를 시켜 만류하려 했고, ‘江亭秋夜玩月’이란 제목으로 시를 지어줄 것을 청하기도 하며, 기씨녀가 떠난 뒤에는 그녀를 잊지 못하는 시를 짓기도 한다.

雲雨陽臺一夢間	양대에서 나는 정이 한갓 꿈이런가
何年重見玉蕭還	피리불고 오는 님 언제나 다시 볼까
江波縱是無情物	강물이야 비록 무정한 것이건만
嗚咽哀鳴下別灣	님 떠난 포구로 울며울며 내려가네 ²⁵⁾

기씨녀가 떠난 뒤 그녀를 그리워하며 지은 위의 시에서처럼 역사의식에 충만해 있던 홍생은 한 여인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고 마침내 이것이 원인이 되어 병들어 죽게 된다.

홍생은 세속의 인간이고 기씨녀는 선녀이다. 세속의 인간으로서 선녀를 사모한 나머지 병들어 죽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초현실세계로의 이탈을 희망했다는 것이 된다. 사실 홍생은 죽기 임박해서 견우성 막하의 속관(屬官)으로 임명되는 꿈을 꾸게 된다.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기씨녀에 대한 홍생의 사랑은 홍생이 초현실세계로 편입해 들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취유부벽정기’에 나오는 남녀 사이의 애정은 홍생이 초현실세계로 들어가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남녀 사이의 애정을 다루고 있음에도 작품의 초점이 남녀 사이의 애정문제 그 자체에 놓여있지 않았다는 말이다.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에서의 만남이 이성 사이의 자연스런 관심에 의한 것이었던 데 비해 ‘취유부벽정기’에서의 만남이 역사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를 매개로 이

25) 醉遊浮碧亭記.

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앞의 두 작품에는 性愛가 나타나는데 ‘취유부벽 정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까닭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홍생이 초현실세계로의 편입을 갈망했다는 것은 정화되고 안정된 삶을 얻으려는 초월적 현실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되는가 하면,²⁶⁾ 천상본향의 낙원회복을 갈망하는 지상인의 실낙원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²⁷⁾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숭고하고 영원한 것을 지향하지만 이것은 현실도피의 패배주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해석되기도 했다.²⁸⁾ 그러나 홍생이 기씨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 결과 초현실세계로 편입해 들어가게 되기까지의 변모에는 그가 역사의식에 충만해 있던 인물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홍생은 여인의 미모에 쉽게 흔들리는 인물이 아니었다. 충만된 역사의식이 그의 관심을 그런 문제에 머무르지 못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부벽루에서 기씨녀를 처음 만났을 때 홍생은 그녀를 두려워 하고 꺼려하기도 했다.²⁹⁾ 그러나 역사의 정당한 흐름이 단절된 것에 대한 비통한 심정을 시로 화답하고, 그녀가 기자조선의 왕녀로서 고국에 대한 회포를 이기지 못해 부벽루에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 홍생은 기씨녀를 사랑하게 된다. 홍생이 기씨녀를 사랑하기까지는 먼저 사고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온다. 이것은 홍생이 기씨녀를 사모하게 된 것이 단순히 미모에 있지 않고 사고의 동질성에 이끌렸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씨녀는 하늘로 돌아가며 홍생에게 맑은 이야기를 다 나누지 못해 섭섭하다고 하고 있고, 홍생도 그녀가 한 말을 모조리 기록하고 좋은 인연을 얻었으나 마음에 쌓여 있는 이야기를 다하지 못한 것을 서운해 했다.³⁰⁾ 홍생이 기씨녀를 사모하고 나아가 초현실세계로의 편입을 갈망한 중요한 동기가 그녀에게서 사고의 동질성을 발견하고 가슴에 쌓여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슴 속에 쌓여 있는 이야기 그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역사의 정

26) 崔三龍, 金鰲新話의 悲劇性과 超越의 問題(韓國古小說研究, 二友出版社, 1983).

27) 이상택, 앞의 글.

28) 임형택, 앞의 글.

29) 홍생은 기씨녀가 부벽정에 내려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주저하다가 마침내 작은 기침소리를 내어 자기의 존재를 알린다(生一恐一喜 踟躕不已 作小聲咳聲, 醉遊浮碧亭記).

30) 將歸 使侍兒傳命曰 帝命有嚴 將驂白鸞 清話未盡 愴我中情……生惺然而立……倚欄想想 盡記其語 因念奇遇 而未盡情款 乃追懷以吟口(醉遊浮碧亭記).

당한 흐름과 인간의 삶에 얽혀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역사의 정당한 흐름이 단절된 데에 대한 흥생과 기씨녀의 비통한 심정은 김시습의 역사의를 대변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에서 김시습이 확인한 것은 힘을 앞세운 패역한 세력에 의해 역사의 정당한 흐름이 단절되었던 일이 과거에도 빈번하게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역사의 정당한 흐름이 단절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당위일 뿐 삶의 실제 국면에서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무엇이 잘못되어 삶의 진실한 이치가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 삶의 진실한 이치라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현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검증할 방도가 없었다. 역사에서는 단절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고, 현실공간에서는 또한 거기대로 당위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원칙일 뿐이고 현실에는 현실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름대로의 엄정한 당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흥생이 초현실세계로 편입되어 떠났다는 것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삶의 진실한 이치를 근본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공간으로 편입해 들어가게 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패배주의의 결과도 아니고 낙원회복이나 안정된 삶을 지향하는 것도 아니다. 삶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의 결과이다.

‘취유부벽정기’는 미완성된 작품이다. 삶의 이치를 본격적으로 따져보기 위한 준비단계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삶의 이치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작품의 바로 뒤에 나오는 ‘남염부주지’에서 이다. 그리고 ‘취유부벽정기’는 ‘이생규장전’에서 세종임금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반추하며 시대의 패역상에 절망하고 분노했던 김시습이 역사로 눈을 돌려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했던 작품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앞에 있는 작품의 의미를 수렴 발전시키고 있는가 하면 본격적인 논쟁의 준비단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유부벽정기’는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다섯 편의 작품이 개별적인 작품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작품의 해석도 이와 같은 맥락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는 작품이다.

흥생이 부벽루에서 기씨녀를 만난 것은 꿈 속에서의 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기씨녀가 사라지고 난 뒤 정신을 차리고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꿈인것 같기도 하고 생시인 것같기도 했다(生惺然而立 藐爾而思 似夢非夢 似眞非眞)고 하거나, 기씨녀를 그리워하며 읊은 앞의 시에서 부벽루에서의 만남이 꿈이었던 것 같

다고 토로하는 데에서 이것이 확인된다. 꿈은 문학에서 원망충족과 이계탐색(異界探索)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고, 이것은 환몽구조라는 독특한 양식을 형성하기도 했다. 물론 작품은 아직 환몽구조의 틀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환몽구조의 틀이 제대로 갖추어지는 것은 ‘남염부주지’와 ‘용궁부연록’에서 인데, ‘취유부벽정기’에서 불완전하나마 환몽구조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 작품이 이계탐색의 준비단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무관할 수 없다.

‘남염부주지’는 경주에 살던 박생이 어느 날 글을 읽다가 꿈에 남염부주에 가서 그곳의 임금인 염왕과 유교와 불교, 귀신, 천당과 지옥,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고는 꿈에서 깨어난 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어 버리고 염왕이 되어 돌아갔다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남염부주지’는 <금오신화> 소재의 다른 작품들이 주로 우의적 방법에 의해 쓰여지고 있는 것과 달리 삶의 바른 이치를 논설적으로 따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의 생각이 보다 직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생은 평소에 일리론(一理論)이라는 글을 지어서 자신을 깨우치고 있었다. 세상의 이치란 하나가 있을 뿐인데 이치란 하늘이 내려준 바의 천성으로서 일용사물에 있어서 각각 조리(條理)를 가지는 것이어서 우리가 궁리진성(窮理盡性)하고 격물치지(格物致知)하는 것도 바로 이 이치를 연구하는 일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세상에서 진실된 이치란 어느 경우일지라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래의 품성을 지키는 것 이외에는 없다는 말이다.

평소에 이같은 지론을 갖고 있었던 박생은 염부주에서 염왕을 만나 공자와 석가에 대해서 물어 본다. 공자는 문명국의 성인으로 정도로써 사도를 물리치려 했고, 석가는 간혹한 나라의 성인으로 사도로써 사도를 물리치려 했으나 사람들을 바른 도리에 돌아가게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고 했다. 따라서 유교와 불교를 대립적인 것으로 보아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된다. 어느 것이나 사람들을 바른 도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필요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받아들일 따름이라는 말이다.

박생은 이어서 귀신(鬼神)에 대해 물어본다. 염왕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귀(鬼)라는 것은 음(陰)의 영(靈)이요, 신(神)이라는 것은 양(陽)의 영(靈)이니 대개 귀신은 조화의 자취요 음양(陰陽)의 양능(良能)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인물이라 하고 죽으면 귀신이라 하지만 본래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³¹⁾

부여받은 기(氣)의 상태에 따라 귀와 신으로 나누어지지만 귀신은 이기(二氣 - 陰陽)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조화의 자취일 따름이라는 말이다. 음양 조화의 자취요 양능이므로 삼라만상의 존재와 변화가 귀신의 체(體)가 아닌 것이 없고 음양이 바뀌는 것은 귀신의 용(用)이 된다. 따라서 귀신은 하늘과 땅, 산천초목, 사람과 짐승의 화생과 조화를 있게 하는 천지의 바른 기운이다. 천지의 바른 기운이므로 귀신은 음양 조화의 이치에 합당하고 천지의 도(道)와 예(禮)에 맞지 않음이 없되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다.

그러나 세상에는 요괴라는 것이 있어 모습을 갖고 나타나 사람들을 해치고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귀신이 음양의 변화를 마음대로 하고 조화와 어울리는 까닭에 자취도 없이 신묘한 작용으로 천명을 회복하게 하는데 비해 요괴는 울결되어 모습을 갖고 사람을 원망하고 괴롭힌다고 했다. 그렇다면 요괴는 귀신의 덕(德)이 무너지고 귀신이 귀신이 되는 바른 이치가 지켜지지 않은 데에서 나온 것이므로, 사특하고 어지러진 기가 울결되어 나타나게 된 귀신의 이변이다. 따라서 요괴의 농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귀신의 덕을 회복하여야 하고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음양의 바른 이치를 지키는데 힘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박생은 이어서 천당과 지옥의 존재, 명부시왕(冥府十王)의 죄인 문초 문제, 재(齋)를 올려 죽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습속, 윤회설(輪廻說) 등에 대해 물어본다. 이에 대해 염왕은 건곤(乾坤) 밖에 또 건곤이 있을 수 없고, 천지 밖에 또 천지가 있을 수 없다고 하며 천당과 지옥의 존재를 부인했고, 한 하늘에 두 해가 없고 한 나라에 두 왕이 없듯이 명부에 열 명이나 되는 왕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며 명부시왕의 존재를 부인했다. 그리고 재란 정결이라는 뜻이고 부처는 깨끗함을 왕은 존엄함을 이르는 것인데 깨끗하고 존엄한 부처와 왕이 죄인의 뇌물을 받을 리가 없고 재를 올려 죄사함을 빈다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서 정결을 이루는 것이므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정신과 기운이 곧 흩어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몸뚱이는 땅으로 내려가 근본으로 돌아가므로 비록 일시적으로 정기가 흩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흩어져 소멸되는 것이므로 사람이 죽어서 윤회한다는 것도 잘못이라고 했다.

31) 鬼者陰之靈 神者陽之靈 蓋造化之迹 而二氣之良能也 生則曰人物 死則曰鬼神 而其理則未嘗異也(南炎浮洲志).

이처럼 박생과 염왕은 세상의 이치란 어느 경우에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의 바른 이치가 있을 뿐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타락한 가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상주된 사람은 아내와 자녀를 거느리고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들여 남녀가 뒤섞여 오물이 낭자하니 깨끗한 세상은 더러운 뒷간으로 바뀌고 고요한 장소가 소란한 시장으로 바뀌게”³²⁾ 되어, 예의와 분별이 없어지고 정결해야 할 곳이 지저분한 곳으로 바뀌며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하게 됨으로써 세상이 어지러워지게 되었다고 했다.

어지러워진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바른 이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도달한 결론이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포학으로 백성을 위협해서는 안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복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 속에는 반역할 의사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일이 지나면 마침내 큰 일을 일으킵니다. 덕망이 없는 사람이 권력으로 왕위에 올라서는 안됩니다. 하늘은 꼭진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행사으로써 보여 처음부터 끝까지 이르게 합니다. 상제의 명령은 실로 엄합니다. 대개 나라라는 백성의 나라이고 명령은 하늘의 명령입니다. 천명이 가버리고 민심이 떠나면 자기 몸을 보전하려해도 어찌 보전되겠습니까.³³⁾

나라는 백성의 나라이니 포학으로 백성을 다스려서는 안되고, 덕망이 없는 사람이 권력으로 왕위에 올라서는 안된다고 했다. 천명을 지키고 민심을 보존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세상이 어지러워지게 된다는 것이 요지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바른 이치가 천명과 민심을 지키고 돌보는 데 있다는 말이다. 염왕과 박생은 이어서 천명과 민심을 지키고 돌보지 않을 때 수재나 한해가 닥치는가 하면 요괴의 변괴가 생기고 간사한 신하가 나라를 어지럽히며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상의 모든 어지러움이 결국 나라를 다스리는 바른 이치가 지켜지지 않는데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32) 爲喪者 携妻率兒 援類呼朋 男女混雜 矢溺狼藉 使淨土變爲穢濁 寂場變爲鬧市(南炎浮洲志).

33) 有國者 不可以暴劫民 民若瞿瞿以從 內懷悖逆 積日累月 則堅冰之禍起矣 無德者 不可以力進位 天雖不諄諄以語 示以行事 自始至終 而上帝之命嚴矣 蓋國者 民之國 命者 天之命也 天命已去 民心已離 則雖欲保身 將何爲哉 (南炎浮洲志).

박생은 이제 염왕과의 대화를 통해 유교와 불교, 귀신에 대한 문제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바른 이치가 있을 뿐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바른 이치가 지켜지지 않을 때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치의 정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생과 세상의 이치에 대해 문답을 나눈 염왕은 남쪽 염부주의 왕으로서 “염부주를 다스린 지 일만년이 넘었고,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통해서 마음 먹고 뜻하는 바가 신통하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는(爲此土君師已萬餘載矣 壽久而靈 心之所之 無不神通 志之所欲 無不適意)”³⁴⁾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세상의 이치에 두루 통달한 염왕에 의해 입증되었기 때문에 박생의 생각은 더욱 신빙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박생이 삶에 대한 바른 이치에 두루 통달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생이 세상과 어울릴 수 없었던 것은 뜻과 기상이 매우 고상해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고, 정직하고 사심이 없고 뜻이 굳어 지조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세상에는 하나의 이치가 있을 뿐이므로 그것이 지켜져야 한다는 신념은 그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박생이 처음부터 세상과 어긋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유학을 공부하여 일찌기 태학관에 적을 두고 과거에도 여러번 응시했던 인물이었다. 세상에 진출해 자신의 뜻을 펼쳐보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뜻과 세상이 어긋나 박생은 형산의 옥이 별판에 버려지고 명월이 깊은 못에 잠긴 것과 같은 신세가 되어 항상 마음 속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세상의 이치에 대한 박생의 생각과 세상에서의 처지는 곧 김시습의 생각이었고 처해 있던 상황이었다. 박생이 염왕과 나누었던 이야기는 ‘태극설(太極說)’, ‘귀신설(鬼神說)’, ‘생사설(生死說)’, ‘애민의(愛民義)’, ‘방본잠(邦本箴)’ 등에 나와 있는 김시습의 생각과 일치하며, 세상에서 박생이 처해 있는 상황은 김시습의 처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염왕은 박생과 세상의 이치를 두루 논한 뒤 염부주의 왕위를 박생에게 물려 준다. 덕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정치의 바른 이치를 회복하여 타락하고 어지러워진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른

34) 醉遊浮碧亭記.

이치가 지켜지고 있는 것은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염부주였다. 꿈에서 깨어난 후 박생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염부주의 왕이 되어 간다.³⁵⁾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른 이치가 지켜지는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려는 것이고, 타락한 가치에 지배되는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뜻을 펴고 그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어 했으면서도 그럴 수 없었던 박생이 선택한 길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었다. 이처럼 ‘남염부주지’는 삶의 이치에 대한 자기 생각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세상의 바른 이치에 통달해 있음에도 세상과 어울릴 수 없어 세상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김시습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용궁부연록’은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마지막 작품이다. 개성에 살고 있던 한생이 어느 날 용왕의 초대를 받아 용궁에 가서 용왕의 딸이 결혼해서 살 집의 상량문을 써주고 용궁의 잔치에 참여하여 시재(詩才)를 뽑내기도 하는 등 탁월한 문장력을 발휘하고 돌아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용궁에서 한생은 명성이 삼한에 나타났고 재주가 백가(百家)에 으뜸가는 선비로 대접을 받으며 재주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용궁부연록’은 ‘남염부주지’ 이후의 세계 즉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 뜻을 펼칠 수 없었던 김시습이 세상에 나아가 마음껏 경륜을 떨쳐 보고자 했던 꿈을 실현시키고 있는 원망충족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용궁부연록’은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나머지 네 작품에 비하여 이야기 줄거리가 가장 단조롭다. 작품의 대부분이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지은 한생의 상량문과 흥겨운 잔치에서 주고 받은 시편들 그리고 한생이 용궁을 관광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을 뿐이다. 세상과의 갈등이 해소되고 도래한 화합의 즐거움과 평화스런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용궁부연록’은 김시습의 성장체험을 작품화 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³⁶⁾ 한생의 용궁체험은 김시습이 세종과의 만남을 술회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한생이 용왕을 만나기 위해 들어섰던 ‘습仁之門’은 김시습이 세종을 만나기 위해 들어섰던 ‘興仁之門’을 지칭하며, 용왕은 세종을, 수정궁은 경복궁을 지칭하고, 상량문을 쓴 것은 세종이 김시습의 재주를 시험한 것이며, 용왕으로부터 받은 선물

35) 自念將死 日以處置家事爲懷 數月有疾 料必不起 却醫巫而逝 其將化之夕 夢神人 告於四隣曰 汝隣家某公 將爲閻羅王者云 (南炎浮洲志).

36) 李家源, 金鰲新話解題, 通文館, 1959.

朴晟義, 韓國古代小說史, 日新社, 1958.

은 세종이 김시습에게 내린 비단 오십 필의 하사품을 지칭한 것이고, 용궁에서 본 신기한 기구들은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한다. 세상과 맞지 않아 평생을 고통스럽게 보내야 했던 김시습에게 있어서 세종의 부름을 받고 궁중에 들어가 재주를 뽐낼 수 있었던 경험은 세상과 단 한 번 가졌던 화합의 장이었고, 이것이 세상과의 합일을 바라는 원망충족의 작품에서 형상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한생은 꿈에서 깨어난 후 세상의 명예와 이익에는 생각을 두지 않고 명산에 들어가 생을 마친다. 세상에 나아가 공명을 이루고 재주를 뽐내었던 일이 깨어보니 한갓 꿈에 불과했던 것이었다. 이것은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고 보다 높은 수준으로 사고가 전환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용궁부연록’의 결말 부분의 의미는 <금오신화>의 다른 작품들과 구별된다. ‘만복사저포기’에서 ‘남염부주지’에 이르기까지의 결말도 모두 주인공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같이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던 세상에 대한 울분과 반항의 몸짓이었다. 그만큼 삶에 대한 주인공들의 자세는 치열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주인공은 이제 세속적인 삶에 얽매인다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용궁에서 지었던 다음 식귀는 한생이 자기가 겪었던 생에 대한 체험의 의미를 어떻게 마무리짓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變化留神迹	騰攀建大功	풍운 변화 신의 자취 남겨 있고 하늘에 올라 큰 공을 이루니
煙燼生細霧	駘蕩起祥風	가는 안개 연기처럼 피어 오르고 상서로운 바람 화창하게 일어나네
.....	
珍味充喉潤	恩波浹骨融	산해진미 배부르고 깊은 은혜 뼈에 스며
還如殮沆瀣	宛似到瀛蓬	신선 기운 마시고 온 듯하고 봉래산에 구경은 듯 한데
歡罷應相別	風流一夢中	즐거운 뒤 이별이라 풍류 또한 꿈결같네 ³⁷⁾

세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육신의 영화와 임금의 은덕이 한 몸에 집중되어도 모든 세상살이의 즐거움이 꿈처럼 부질없다고 읊고 있다. 세상살이에서의 영광과

37) 龍宮赴宴錄.

즐거움이 부질없는 것이라면 즐거움이 다하면 이별이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듯이 세상에 대해 느꼈던 엄청난 절망과 반항도 부질없는 것이 된다. 이것은 생에 대한 달관의 경지이다. 이처럼 ‘용궁부연록’은 세상살이에서 느꼈던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라앉고 조용하게 생 전체의 의미를 관조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⁸⁾ 김시습이 홍산의 무량사에서 생을 마칠 즈음 지었다는 다음의 시는 이같은 심정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春雨浪浪三二月	이삼월 봄비가 축축히 내리는데
扶持暴病起禪房	몸살 병 겨우 지탱하여 선방에 앉으니
向生欲問西來意	인생을 묻고 싶네 達摩는 왜 왔던가
却恐他僧作舉揚	두어라 중들이 듣고 소란할까 두렵네 ³⁹⁾

죽음이 저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파란만장했던 삶의 역정이 무엇을 위함이었던가를 물어보고 있다. 생의 마지막 지평에 서서 던지는 인생에 대한 물음. 이처럼 커다란 질문과 마주 서면 아무리 심각했던 세상살이에서의 문체도 문득 하찮은 것이 되어 버린다. 세상에 나아가 뜻을 펴려던 청운의 꿈이 깨어진 좌절감도, 고독한 예외자로 떠돌아 다녀야 했던 고통스런 삶의 여정도, 타락한 세상에 대해 느꼈던 참을 수 없는 분노도, 세상을 등졌음에도 끊을 수 없었던 세상에 대한 미련도 또 그로 인한 번민도 모두 덧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김시습은 생의 한 지평에 서서 문득 생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절감했을 것이고 이것을 ‘용궁부연록’의 결말로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김시습은 자기의 가치를 알아 준 세종에 대해 대단한 그리움의 감정을 품고 있

38) 용궁의 흥겨운 잔치에서 부른 시편들이 즐거움을 노래하면서도 애조(哀調)를 띄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용궁부연록’이 세상 명리의 부질없음을 자각하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김시습의 이율배반적 심정을 토로한 작품이라는 해석(이혜순, 금오신화(韓國古典小說作品論, 集文堂, 1990)은 이런 점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39) 金時習, 無量寺臥病(梅月堂詩集 卷七).

었다. ‘만복사저포기’는 김시습과 세종 사이에 교감되었던 둘만의 내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으며, 김시습에게 있어서 세종과의 만남이 삶의 전 의미를 바꾸어 놓을 만큼 절대적인 사건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세종과 김시습의 만남은 사회적 공간에서의 관계이기도 했는데 ‘이생규장전’은 만남의 사회적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었다. 여기에서는 사회적 금기체계의 벽을 넘어서 만났던 김시습과 세종의 만남이 힘을 앞세운 패도에 의해 무너졌던 과정이 나타나며 거기에서 과생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절망과 비탄 그리고 세상에 대해 견잡을 수 없는 반감이 표출되고 있었다.

‘취유부벽정기’는 시대의 패역상을 보며 참을 수 없는 절망과 세상에 대한 반감으로 방황하던 김시습이 역사로 눈을 돌려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 한 작품이었다. 김시습이 시대의 패역상을 보며 절망하고 분노했던 것은 세종의 치세에 의해 회복되어 가던 역사의 정당한 흐름이 단절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의 정당한 흐름이 단절되었던 사례가 과거에도 얼마든지 있었다는 실망스런 결과였을 뿐이었다. 여기에서 김시습이 부딪힌 문제는 그렇다면 과연 삶의 진실한 의미나 이치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논설적으로 따져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보려 한 것이 ‘남부부주지’였다. 이치를 따져서 내린 결론은 삶의 바른 이치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데에서 세상이 어지러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용궁부연록’은 세상의 이치를 두루 따져 자기 생각의 정당성을 확인한 김시습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 마음껏 경륜을 펼쳐보고자 했던 꿈을 실현시킨 작품이었다. 그러나 ‘용궁부연록’은 세상에서의 영광과 즐거움이 꿈처럼 부질없는 것이라는 새로운 깨달음의 경지를 제시한다. 이것은 삶에 대한 달관의 자세인데 여기에 이르러 김시습은 세상살이에서 느꼈던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를 가라 앉히고 조용하게 생전체의 의미를 관조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다섯 편의 작품들이 일정한 논리의 순차에 따라 유기적으로 관계맺으며 전개되고 종결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이 관계는 김시습이 세종과의 만남을 반추하고 이 만남이 깨어지게 되면서 겪게 되었던 의식의 변모과정에 의해 짜여져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금오신화>는 그것대로 완결되어진 한 편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필

요에 의해 개별적인 작품으로 나뉘어져 읽히고 논의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구조의 틀과 격리되어서는 작품의 의미를 왜곡시키게 된다.

<금오신화>는 김시습이 겪었던 삶의 체험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논의를 통해서 드러나 있듯이 김시습은 자신이 세상에 대해 던질 수밖에 없었던 깊은 절망과 분노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으며,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몸부림을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해 왔던가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자신이 세상과 맺고 있었던 관계의 망을 남김없이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오신화>가 김시습이 겪었던 삶의 체험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는 해석은 <금오신화>를 한 편의 완결되어진 작품으로 보는 데에서 보다 깊이 있게 논증될 수 있었다.